

## 우리나라의 近代 獸醫學 小史

林 昌 亨\*

수의학(獸醫學) 동물의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하고, 동물과 동물의 생산물을 사람이 위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하는 학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동물성 식품의 수요가 점차로 증가하고 이에 부응하여 축산업(畜産業)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수의학은 본래 축산업의 발달과 동물성 식품의 수요증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에서는 현대적 학문으로서 이미 200여년 전부터 발전하여 왔다.

축산업 경영에 있어서 수의학은 동물의 질병관리와 사양기술의 요체가 된다. 또한 공중보건위생(公衆保健衛生)에 있어서 동물 또는 동물성 생산품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을 예방하는 한편 축산식품의 위생검사를 통해서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근래 식품·약품의 안전성과 공해(公害)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위생(産業衛生)이 활발히 대두됨에 따라, 실험동물(實驗動物)을 이용한 여러가지 안전 및 효능시험이 필수적 요건으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수의학의 한 부문으로서 실험동물의학(實驗動物醫學)의 발전을 보게 되었다. 한편 수의학에서 밝혀진 동물의 어떤 질병은 사람 질병의 '모델'로서 의학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축산업의 주류인 산업동물(産業動物: 소·돼지·닭·양·말 등)과는 다른 면에서 애완동물(愛玩動物: 개·고양이·새·원숭이 등)은, 복잡한 산업사회가 몰고

온 인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 또는 순화시켜 주는 위락의 동반자로서 생활속에 정착해 가고 있고, 이에 관한 특수 수의학분야가 발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야생동물(野生動物)과 어류(魚類)의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이들 자연자원의 보존과 증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의 국제교류가 활발하여 짐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축을 위시한 각종 동물 및 식육(食肉)·생피(生皮)·피혁(皮革)·모류(毛類)와 같은 축산물이 수입됨으로써 외래성 가축전염병(外來性 家畜傳染病)의 방제를 위한 검역(檢疫)업무가 중요한 부문이 되고 있다.

원시시대에 의술(醫術)이 발생하였던 것 처럼 수의술(獸醫術)도 인류가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한 때부터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단군설화(檀君說話)에 보듯이 원시 수의술은 기도(祈禱)·주원(呪願)·금기(禁忌)같은 무주적(巫呪的) 방법과 애구(艾灸)·마늘같은 약재가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혜자법사(惠慈法師)가 595년(高句麗 嬰陽王 6)에 일본에 건너가서 불교를 흥포하는 동시에 요마법(療馬法)을 전수한 기록이 있다. 가축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수의(獸醫)라는 명칭으로서 기록에 나타나기는 1388(高麗 辛禰14)이 처음이지만, 이보다 앞서 1076년(高麗 文宗 30)에 수의술의 전문기술자 또는 교직을 뜻하는 수의박사(獸醫博士)에 의해서 가축진료교육이 실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수의축산(獸醫畜産)에 관한 최초의 저술은 1399년(朝鮮

\* 서울대학교 獸醫科大學

朝 定宗 1)에 간행된 신편집성 마의방 우의방(新編集成 馬醫方 牛醫方)으로 이 두 가축의 감정법과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그 후 1465년(世祖 11)에 徐居正이 마의서(馬醫書)를 간행하였고, 1541년(中宗 36)에 여러 가축의 전염병치료방법을 한방적(漢方的) 방법으로 설명한 우마양저염병치료방(牛馬羊猪染病治療方)이 왕명(王命)으로 편찬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수의학교육으로, 대한제국 말엽인 1906년 설립한 수원농림학교(2년제 지금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전신)에서 수의학대의(獸醫學大意)를 가르쳐 오다가, 1908년에 1년제 수의속성과(獸醫速成科)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현대적 의미의 수의학의 효시(嚆矢)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09년 관비지급(官費支給)으로 공부한 20명의 졸업생을 내고서는 폐과하고 말았다. 이렇듯 현대수의학 교육은 일찍 첫발을 내디뎠지만 당시의 상황은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았다. 1909년 3년제(본과)로 개편한 수원농림학교에 수의해부학·생리학·병리학·위생학의 내용을 담은 수의학대의가 교과목(教科目)의 하나로 계속 남게 되었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 각 도(道)의 5년제 갑종(甲種) 농업학교에 점차적으로 수의축산과(獸醫畜産科)를 두어 일선 실무에 종사할 소수의 수의사(獸醫師)를 양성하였다. 그리고 1937년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수원농림학교 후신)에 3년제 수의축산과를 설치하여 상급 수의전문기술인을 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인은 극소수만이 입학되었고, 1945년까지 불과 30명의 졸업생을 냈을 뿐이다.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자 수원농림전문학교(수원고등농림학교 개칭)는 수업기간 4년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새로이 출발하였고, 이때 수의축산과는 수의학과(獸醫學科)와 축산학과(畜産學科)로 분리 운영되었고, 1947년 수의학과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부(獸醫學部)로 발족하여 독립 사무체계를 갖추었다. 이때 비로서 현대적 수의학

교육과 수의학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 후 1953년 「국립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의거해서 단과대학(單科大學)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獸醫科大學)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5·16 직후인 1962년 고등교육기구 간소화방침에 따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의학과로 다시 개편되었다가, 1976년에 또다시 단과대학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으로 복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대 수의학교육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주축으로 하여 착실히 발전해 왔고, 1950년대에 들어 와서 각 도의 국립대학에 수의학과가 점차로 설치되어 지역사회와 수의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수의학의 연구방향은 8·15이전까지 산업의 후진성과 상급 전문기술인의 과부족으로 제한된 가축방역업무에만 치중하였다. 가축의 전염병은 옛부터 장역(瘴疫)·여역(癘疫)·우역(牛疫) 등의 명칭으로 유행하였는데 조선조말까지 이런 것이 일종의 천재(天災)로 여겨 왔었다. 1870년 만주와 시베리아로 부터 소의 전염병인 우역이 침입하여, 그 후 3~4년마다 반복유행으로 큰 피해를 겪어 오다가, 1890년을 전후하여 평안(平安)·함경(咸鏡)등 북부지방에 우역전염병이 극에 달하였다. 이때 평양(平壤)에서는 소 100두 중 살아남은 것이 3~4두 밖에 안되는 비율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1908년(隆熙 2)에 비로서 함경북도에 우역예방을 위한 수의사 1명을 배치하였고, 1909년(隆熙 3)에는 수출우검역법(輸出牛檢疫法)이 발표되어 경상남도 동래군 우암(牛巖)이란 곳에 가축검역소(家畜檢疫所)가 설치되었다. 이어 처음으로 도축처리(屠畜處理)를 위한 도축규칙(屠畜規則)이 발표되었다. 이 때를 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1907~1910년 사이의 수역조사(獸疫調査)를 시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소의 전염병인 우역(牛疫)·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유행성아구창(流行性鷺口瘡)등, 돼지의 전염병인 돼지 콜레라·돈역(豚疫) 그리고 개의 전염병인 광견병(狂犬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1902년(高宗6)에 대구(大邱)지방에서 소 1두가 탄저로 폐사하였을 때 부근의 축우(畜牛)에 예방을 목적으로 혈청 주사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의 가축에 대한 예방주사의 최초이며, 농민에 대한 계몽강습회를 통해서 가축전염병예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당시는 현대 수의학이 미처 들어오지도 않던 때였으므로, 질병의 진단도 불확실하였고 그 치료방법도 기도(祈禱)·침술(針術)·한약제(漢藥劑)의 이용 정도였으며, 병축(病畜)의 고기는 식용으로 하는 등 가축위생(家畜衛生) 부재의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가축위생연구는 1911년 부산(釜山)의 송도(松島)에 설립한 우역혈청제조소(牛疫血清製造所)로부터 비롯된다. 당시의 축산은 한우(韓牛)가 대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축방역 업무는 한우를 보호하는데 있었다. 1915년 수역예방령(獸疫予防令)을 발표하고, 우역·탄저·기증저 등의 혈청 또는 예방약을 제조 공급하였다. 1930년대 후반부터는 돈역(豚疫)과 계역(鷄疫)에 관한 예방약을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각종 전염병을 점차로 감소 또는 종식시키는 데 이바지 하였다.

1945년 8·15해방을 맞으면서 미국의 선진제도와 수의기술이 밀어닥쳐 왔을 때, 수의계로서는 그러한 선진문명을 적절히 소화할 능력이 부족하였다. 본격적인 수의학연구가 시작된 것은 6·25동란 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부터였다. 전후(戰後)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최신 실험기기(器機)가 도입되고, 선진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의 교수와 연구소의 연구원이 장기 또는 단기로 북미(北美)를 위시하여 구주(歐州) 및 호주(濠州) 등지에 파견되어

수의기초학 또는 임상학분야의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하였다. 이로써 소수정예의 최신 전문기술인이 선도가 되어 어려운 사회여건속에서 수의학을 발전시키게 될 계기를 만들었다. 오늘날 모든 가축질병에 대한 검색·예방·검역 그리고 고도의 임상기술을 발전 보급시킴으로써 축산자원의 보호육성과 국민보건에 공헌하고 있다. 그리고 군(軍)에 있어서는 수의병과(獸醫兵科)의 수의관으로서 군의식품·환경위생과 군용동물(軍用動物)의 보건·진료를 담당하여 국방에 지주가 되고 있다.

수의학은 광범위한 그 학문의 성격으로 사회적 공헌도가 크며, 수의사라는 직종은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누리는데 알맞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의식주가 충족된 구미(歐美) 선진국에서 수의사의 직업을 제 1급의 전문직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수의학교육은 우리사회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수의사 직무에 대한 인식변화를 밀거름으로써 급속도로 발전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参 考 文 献

1. 金斗鍾: 韓國醫學史 (1955).
2. 水原農學70年.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1976).
3. 韓國畜產30年史. 韓國畜產團體聯合會 (1977).
4.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 要覽. 서울大學校 獸醫科大學 (1983).
5. 서울大學校 20年史. 서울大學校 (1966).
6. 李榮韶: 韓國獸醫學教育的 發見. 大韓獸醫師會誌 (1977) 13: 4.
7. 李淳雨: 美國軍陣獸醫學의 發展過程과 保健分野에서의 獸醫師의 活動. 大韓獸醫師會誌 (1977) 13: 185.
8. 姜冕熙: 韓國獸醫學術의 發展過程. 大韓獸醫師會誌 (1981) 17: 16.